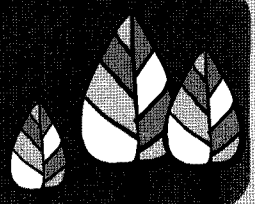


축산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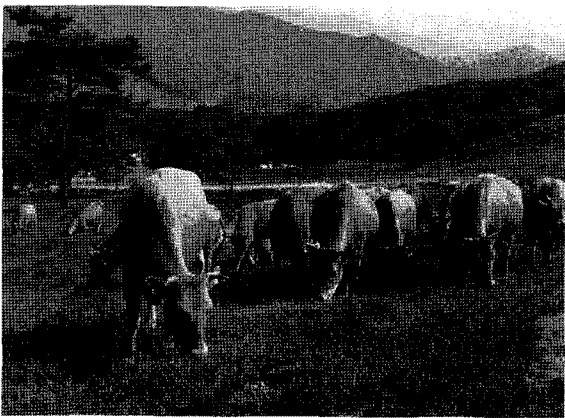
한우

‘한우섬유질 배합사료’ 우수 녹색기술 선정

한우 섬유질 배합사료 기술이 우수 녹색기술로 선정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 제2회 국가녹색기술대상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녹색기술 대상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28개 우수 기술을 선정했다.

이번에 국립축산과학원이 수상한 기술은 농산 부산물을 한우사료로 활용해 한우의 사료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 증대와 함께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기술로 탄소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핵심녹색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0년대 초반 축산과학원은 섬유질배합사료 급여방법을 개발하고 수차례 자체 사양시험과 한우농가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의 기술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한우 섬유질 배합사료의 보급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우섬유질 배합사료의 보급률은 2004년 2.1%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9.1%까지 늘어났다.

축산신문 • 이동일 기자 • dilee@chuksan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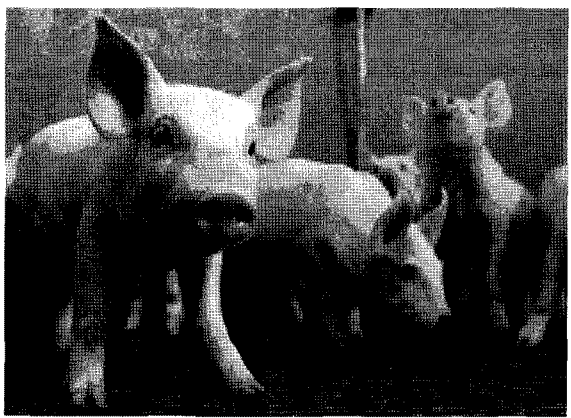
양돈

설 앞두고 한돈햄 소비촉진 캠페인

명동서 햄요리 5000인분 시식회 개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양돈협회는 오는 19일 서울 명동에서 '2011년 설날 한돈햄 선물세트 소비촉진 전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산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소비 확대를 위해 육가공협회와 국내 13개 육가공 브랜드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돈햄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 5,000인분 이상을 준비할 예정이며, 대형수레에 한돈햄 선물세트가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구성해 포토 존으로 활용할 계



획이다.

설날을 앞두고 한돈햄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총 1억 3,000만원 상당의 경품도 지급한다.

양돈협회 관계자는 “구제역과 FTA 등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가를 돕고 맛있는 한돈햄으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한돈햄 선물세트 소비촉진 전 국민 캠페인’에 국민과 기업, 양돈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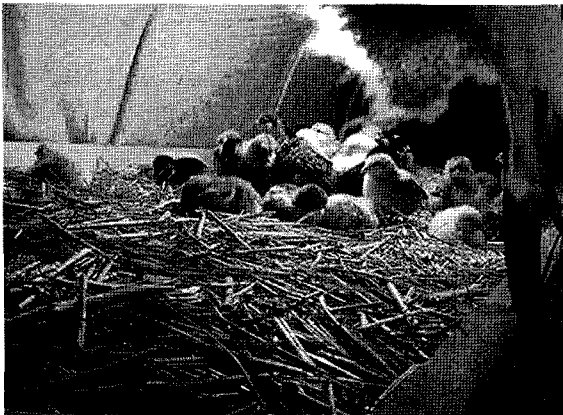
한편 지난 추석의 한돈햄 선물세트 소비촉진 캠페인에서는 약 696톤(돼지 3만 260두 분량) 가량의 한돈육이 사용되면서 200억 원 상당의 폐지가격 지지효과와 함께 저지 방부위 소비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산경제 · 한정희 기자 · penery@chukkyung.co.kr



닭 백과사전
‘닭의 백과’ 출간
(주)현축, 닭 문화 정립

월간 현대양계(발행인 이희훈)가 국내 최초로 닭 백과사전인 ‘닭의 백과’를 출간했다.



신국판을 갈리로 제작된 ‘닭의 백과’는 850여장의 진기한 컬러사진과 컷이 수록됐고 문헌발굴과 고증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닭에 얽힌 이야기들을 망라해 닭 문화를 정립한 닭 백과사전이다.

‘닭의 백과’는 ▲닭의 기원 ▲닭의 생리 ▲생명의 탄생 ▲닭을 아시나요 ▲가금쇼 ▲닭싸움 ▲재미있는 닭들 ▲닭과 관련된 지명 ▲닭 그림 ▲닭에 얽힌 고사 ▲양계박람회 ▲양계관련서적 ▲연구보고서 ▲문학과 영화 속의 닭 ▲계란의 신비 ▲건강식품 닭고기 ▲재래닭, 토종닭, 우리맛닭 ▲긴꼬리닭 ▲지구상의 닭 품종 ▲세계적인 닭 이야기 등 닭에 얽힌 이야기를 집대성한 책으로 양계산업의 백과사전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주)현축 (02)3665-4011~8

축산경제 · 뉴스관리자 · 4311893@hanmail.net



이론 · 실무로 다지는
유가공기술

낙농유가공기술원, 24일부터 5일간 특강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3회 유가공기술기초과정’ 특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강사진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사)한국낙농유가공기술원(원장 정충일)에 의하면 서울 모진동 소재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개최하는 이번 교육은 유업체 기술계 신입사원들을 위한 유가공기초과정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Dairy Processing Handbook’을 주교재로 하여 필요한 유가공기술을 선별하여 특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유의 합성과 분비에서부터 제품포장을 습득하는 동시 ▲제품별 소개와 특징 ▲낙농 및 유가공산업 현황 ▲공장위생과 품질 및 소비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또 서울우유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고 유가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유가공기술원 이만재 이사장을 비롯한 ▲윤성식 교수(연세대) ▲백승천 공장장(서울우유) ▲이광순 이사(테트라팩) ▲백영진 교수(상지대) ▲정관섭 대표(유래코)등 낙농과 유가공에 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대거 확보하여 교육생에게 큰 도움을 줬다.

또한 한국식품정보센터 문은숙 센터장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서울우유 조흥원 조합장이 CEO 각 특강을 했다.

축산신문 • 조용환 • yhcho@chuksannews.co.kr

양봉

양봉자조금, 설맞이 TV, 라디오 대대적 홍보

-MBC, KBS라디오 1일 7회 CM송 방송

양봉협회 제공

-짧지만 잦은 노출로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인지되어



▲건강자킴이 우리 벌꿀

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명절 설(구정)을 맞아 벌꿀선물세트 판매를 촉진시키고, 각 가정에서 명절 선물로 받은 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TV 및 라디오 광고를 시행한다.

1월 15일(토)부터 MBC와 KBS 라디오를 중심으로 청취

률이 높은 시간대에 20초의 CM송이 1일 7회 방송된다. 또한 주부시청률 1위인 일일아침드라마 'SBS장미의 전쟁' 마지막 장면에 협찬바가 20일(목)부터 20일간 노출되어 시청자가 매일 아침 '벌꿀' 문구를 볼 수 있다.

라디오와 협찬바와 같은 짧은 광고의 잦은 노출은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단어가 인지되어 상품의 친근함과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라디오 광고에는 친근하고 전달력 높은 연예인(최주봉 씨)의 목소리를 통해 긍정적 이미지와 집중도를 최대화 하도록 제작하였다.

한편, TV방송은 1월 말과 2월, 아침과 저녁 생활정보프로그램을 통해 벌꿀의 효능과 활용법을 다양하게 방영할 계획이고, 추후 프로그램과 날짜가 확정될 경우 홈페이지와 문자메세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자조금관리위의 TV 및 라디오 방송 집중광고가 벌꿀 판매를 촉진시키고, 신년 및 명절선물 1순위로 자리잡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양봉협회 홈페이지(www.korapis.or.kr)를 통해 라디오 광고CM과 방영시간표를 다시 보실수 있습니다.

